

## '황금세대' 벨기에, 잉글랜드에 2-0 승리...3위로 대회 마감

등록 2018.07.15 01:08:53



벨기에 토마 뫼니에 선제골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2018 러시아 월드컵 3~4위전에서 벨기에가 잉글랜드를 꺾고 3위를 차지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벨기에는 14일(한국시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러시아 월드컵 3~4위전에서 잉글랜드에 2-0으로 승리했다. 이날 열린 3~4위전에는 6만4406명의 관중이 경기장에 입장했다.

벨기에는 잉글랜드전 승리로 월드컵 최고성적을 경신했다. 벨기에는 이번 대회 전까지 1986 멕시코 대회서 4위를 기록한 것이 가장 좋은 성적이었다. 1966년 자국에서 개최된 대회서 정상에 올랐던 잉글랜드는 28년 만에 원정 최고 성적에 도전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잉글랜드 원정 최고 성적은 1990 이탈리아 대회서 거둔 4위다.

잉글랜드(12위)는 전통적인 3-5-2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잉글랜드는 라힘 스털링, 해리 케인을 투톱으로 내세웠다. 키어런 트리피어, 루번 로프터스-치크, 에릭 다이어,파비안 델프, 대니 로즈가 미드필더로 나섰다.필 존스, 존 스톤스, 해리 매과이어가 수비진을 구성했다. 조던 픽포드가 골키퍼 장갑을 꼈다.

벨기에(3위)는 3-4-3 포메이션으로 나왔다. 에덴 아자르, 로멜루 루카쿠, 케빈 데브라위너를 최전방에 내세웠다. 니세르 샤들리,악셀 비첵, 유리 틸레만스, 토마 뫼니에가 미드필드진을 형성했다. 안 베르통언, 빈센트 콤파니, 토비 알데르베이르트가 수비를 책임졌다. 골키퍼는 티보 쿠르투아가 나왔다.

역대전적에서 15승5무2패로 잉글랜드가 압도적으로 앞섰지만 이날 경기는 벨기에가 지배했다. 두 팀은 이미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G조 3차전에서 만나 벨기에가 1-0으로 이겼다. 그러나 잉글랜드와 벨기에 모두 16강 진출을 확정했던 상태여서 상

당수의 주전 선수를 뺐다.



벨기에 로멜루 루카쿠와 잉글랜드 해리 매과이어가 볼을 다투고 있다.

첫 골은 전반 4분만에 나왔다. 골키퍼를 시작으로 5번의 패스만에 골이 들어갔다. 상대 왼쪽 진영을 파고들던 니세르가 낮게 깔아준 크로스로 페널티지역 안에 있던 뢰니에가 왼발로 골로 연결했다.

반격에 나선 잉글랜드는 전반 12분 스텔링이 슈트를 시도했지만 벨기에 수비에 막혔다. 벨기에에는 전반 12분 데브라위너가 결정적인 기회를 얻었지만 득점을 기록하지는 못했다.

잉글랜드는 전반 초반 실점을 허용한 이후에도 수비에 허점을 보이며 몇 차례 위기를 맞았다. 잉글랜드는 케인이 전반 23분 골찬스를 맞았다. 그러나 헤인이 미끄러지면서 슈팅한 볼은 골대를 벗어났다.

루카쿠는 전반 추가시간 후반에서 날아온 롱패스를 이어받아 슈팅을 시도했지만 수비에 막혔다. 벨기에에는 날카로운 침투 패스를 선보이며 골을 기록한 반면 잉글랜드는 세밀함이 떨어지며 벨기에에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잉글랜드는 후반과 동시에 2명의 선수를 교체하며 승부수를 띄웠다. 로즈와 스텔링을 빼고 제시 링가드와 마커스 래쉬포드를 교체 선수로 투입했다.



슈팅 시도하는 잉글랜드 핵심 공격수 해리 케인

벨기에도 후반 15분 루카쿠를 빼고 드리엑스 메르텐스를 넣었다. 루카쿠는 벤치로 물러나면서 4골을 기록한 채 월드컵을 마쳤다.

후반전도 전반전과 마찬가지로 벨기에가 더 많은 공격 기회를 얻었다.

잉글랜드는 후반 24분 다이어가 벨기에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이했지만 벨기에 수비수가 공을 건어내 실점 위기를 넘겼다. 잉글랜드는 후반 28분 공격 상황에서 매과이어가 헤딩슛을 시도했지만 볼은 골대를 살짝 빗나갔다.

벨기에는 후반 34분 역습 상황에서 페널티지역 안에 있던 뫼니에가 논스톱 슈팅을 했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벨기에는 후반 36분 아자르가 썩기공을 넣었다. 역습 과정에서 데브라우너의 패스를 받은 아자르는 페널티지역 안에서 왼발슛으로 잉글랜드 골문을 갈랐다.

한편 러시아 월드컵 득점선두인 케인(6골)과 2위 루카쿠(4골)는 추가골을 뽑아내는 데 실패했다. 케인은 32년간 이어진 게리 리네커의 월드컵 6골 기록을 넘어서지 못했지만 동률을 기록하며 잉글랜드 축구역사에 남을 만한 업적을 남겼다.

ksk@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